

기도

1.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당신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2.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오바댜

오바댜는 “여호와와 동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으로 이웃 나라 에돔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참 통치자가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욥1:21).

구역 공과

2021년 9월 5일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7-25절 (21장, 492장)

골로새서 3장은 성도가 새 사람의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주께 상을 받을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하며 새 사람의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17-22절).

첫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함으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주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생활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18-21절).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따라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질서를 정해주셨습니다(엡5:22-24).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고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엡5:25-28).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은 사랑을 행할 수 없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주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생명임을 깨닫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22절).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셨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을 깨닫고 주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23-25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가르쳐주십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는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세상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여 주께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면 낙심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받기를 힘쓰면 주께서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주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음을 믿고 말씀 안에서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서 주께 상 받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